



[금융] 이동걸 산은회장 연임 업무공백 최소화 포석 05



Economy

코스피 2396.48 (+20.67)	코스닥 884.30 (+14.83)
금리(2년 국채) 0.903 (-0.012)	환율(USD) 1184.90 (-4.20) (10일)

# 카카오군단의 질주... 증시지형 바꿨다

## IPO 역사 바꾼 카잼, 상장 첫날 '파상' 성공

(카카오게임즈)

증시 상장 첫날 폭발적 관심 대기 물량만 3000만주 넘어 공모가비 160%↑ 시총 4.5조 남궁훈 등 경영진들 '돈방석'



상승률은 160%, 주당 차익은 3만 8400원이다. 1억원을 넣어 5주를 배당받은 투자자라면 총 19만2000원의 차익을 챙겼다.

◆ 폭발적 관심... 코스닥 5위로 '점프'

투자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개장 20분도 채 되지 않아 매수 대기 물량만 3000만주를 넘었을 정도다. 개장 직후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가총액 순위표에도 지각변동이 생겼다. 이번 파상으로 카카오게임즈는 단숨에 시가총액이 4조 5680억원을 기록하며 셀트리온제약(4조4433억원)을 누르고 코스닥 시장 5위로 등극했다. 4위 에이치엘비와도 1조원 안팎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

결정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최상단인 4만8000원에서 형성됐다. 공모가(2만4000원)와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文 대통령 '제8차 비상경제회의' "4차 추경 7.8조 편성 피해 큰 업종 집중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예고했다. 정부는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4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고용 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함께 추가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긴급 생계지원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88만명 추가 지원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시간이 늘어난 데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 조치로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신비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소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O형 혈액 부족합니다"

전국 병원 수술 일정 정상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혈액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혈액보관소 'O형' 혈액 칸이 비어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보유량은 10일 현재 약 4.5일분으로,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형 재고량은 3.3일분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 증권사 금리 인하속, '빚투' 최대수혜 증금 '애써 외면'

신용융자 금리 인하 압박에도 한국증권금융 기존 정책 고수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지만 증권유관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은 기존 금리정책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며 연 10% 안팎의 높은 이자를 받았던 증권사는 고금리 장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7조원에 달하며 또 다른 수혜자인 증권금융 역시 투자자를 위한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고금리 장사' 압박에 금리 내리는 증권사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조9202억원을 기록했다. 9거래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1998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날(16조9548억원)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부 대형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위해 대출을 멈추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부터 신용

융자 신규 거래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7월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자연스럽게 금리가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졌다.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최저구간(1~7일 이용 기준) 평균이 5.64%로 은행보다 2배가량 높다. 이용 기간에 따라 최대 연 10~11%까지 올라간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말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증권사들도 반응했다. 미래에셋대우가 9.0%에

서 8.5%, 대신증권이 10.5%에서 8.5%로 각각 인하했다. 업계에선 다른 회사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증권금융 '자본시장 은행' 역할 못한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이 증권사로 부터 받는 가산금리에도 시선이 향한다. '빚투' 개인투자자 덕에 큰 이익을 본 만큼 투자자와 증권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증권사 재무팀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0.1~0.2%에 그치면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아니지만 0.4~0.5% 수준은 얘기가 다르다"며 "주요 고객인 증권사와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을 관리하는 증권금융이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